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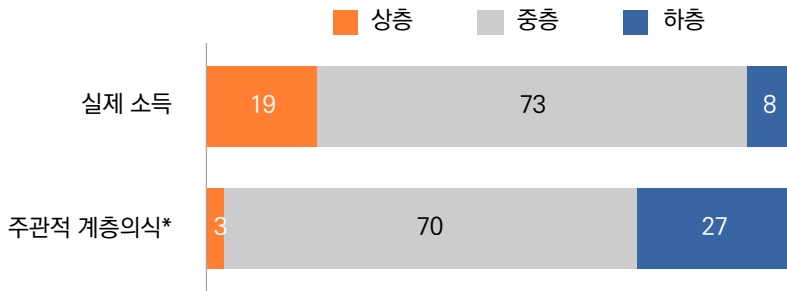


## [한국인의 계층 인식]

# 한국인, 실제보다 자신의 계층을 더 낮게 보는 경향 강해

- 최근 발표된 KDI의 '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' 보고서를 통해 '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'을 실제 소득(10분위)별로 파악하여 계층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. 우선 소득 기준에 따른 객관적 계층의 분포는 '상층' 19%, '중층' 73%, '하층' 8%인 반면,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'상층' 3%, '중층' 70%, '하층' 27%의 분포를 나타내, 서로 상이함을 보였다.

[그림] 계층 인식 구성비 (일반 국민, %)



-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, 중층 소득자(실제소득 구성비 73%)가 본인이 중(산)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51%로 나타났으며 상층 소득자(실제소득 구성비 19%) 역시 본인이 상(류)층이라고 인식하는 1%로 매우 낮았다. 대체로 한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.

[표] 소득기준에 따른 주관적 계층 인식 구성비 (일반 국민, %)

		주관적 계층의식			
		상	중	하	계
실 제 소 득	상(80% 이상)	1	16	2	19
	중(20~80%)	2	51	20	73
	하(0~20%)	0	3	5	8
계		3	70	27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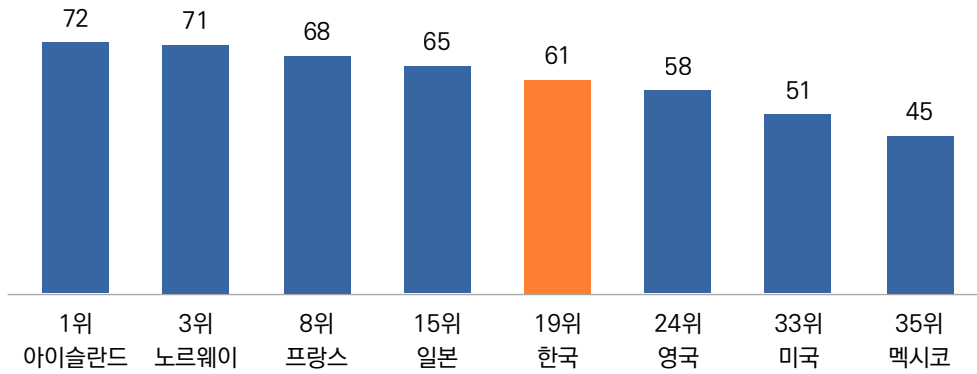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개발연구원(KDI), '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' 보고서, 2024.01.

\*소득, 직업, 학력, 재산 등을 고려할 때,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함

## 중산층 비중, OECD 35개국 중 한국 19위로 중위권!

- 이번에는 실제 국제 기준의 중산층 비중을 OECD 주요국 기준으로 살펴본다. 아이슬란드가 72%로 1위였고, 일본은 15위(65%)로 한국(19위, 61%)보다 약간 높았다. 그 외 미국은 중산층 비중이 51%로 미국인의 절반 정도였고, 꼴찌는 멕시코(35위, 45%)가 차지했다. 한국은 35개국 중 19위로 중위권 수준이었다.

[그림] OECD 주요 국가별 중산층\* 비중 비교 (국제 기준, %)



※출처 : 한국개발연구원(KDI), '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' 보고서, 2024.01.

\*중산층(중간소득계층)은 국가별로 중위소득의 75%~200%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 인구로 정의함